‘목포 가을 페스티벌’ 만족도 높았다

15개 행사서 3천여명 설문조사 94% 긍정 평가

재즈콘서트·낭만비어 등 젊은층서 호평 쏟아져

지난 9-10월 매 주말 열린 ‘목포(愛)가을(藝)페스티벌(樂)’에 대한 참여자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목포시는 최근 ‘2019 목포(愛)가을(藝)페스티벌(樂)’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보고회를 개최했다.

‘목포(愛)가을(藝)페스티벌(樂)’은 예향 목포의 수준 높은 문화예술 역량을 관광 콘텐츠로 발전시키기 브랜드화한 것이다.

지난 9-10월 매주 금·토·일요일 다양한 문화예술 축제와 공연, 전시가 목포 곳곳에서 집중 개최됐다.

이번 모니터링은 목포가을페스티벌 행사 전반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해 지속적인 축제 발전 데이터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진행됐다.

페스티벌 기간 중 22일 동안 15개 행사에 설문요원을 배치, 총 3천268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분석 결과, 20대부터 60대까지 고른 연령층이 방문한 것으로 파악된 가운데 전체 방문객 중 94%가 재방문 의사를 표하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축제 추천 여부를 묻는 문항에서도 68%가 ‘그렇다’고 답해 전반적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특히 재즈가수 웅산과 최백호의 ‘재즈콘서트’는 가을에 잘 어울리는 공연이라는 호평을 받았다.

축제공간과 생활공간을 하나로 일치시켜 주민과 상호 작용하는 새로운 축제의 장을 연 ‘골목길이 춤춘다’, 젊은 층의 높은 참여도를 이끌어낸 ‘낭만비어페스티벌’은 목포의 새로운 문화행사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이 밖에도 근대역사관 1관에서 진행된 근대가요 음악극 ‘청춘연가’ 역시 목포의 근대문화유산과 문화예술을 접목시킨 공연이라는 점에서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했다는 평을 받았다.

광주·전남 지역의 방문자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전체 방문객 중 서울·경기지역 방문객이 10%를 차지해 지속적인 홍보를 통한 전국 관광객 유치 가능성을 보여주는 데이터도 흥미로웠다.

다만 먹거리와 체험 프로그램 부족, 주차장 및 화장실 등 편의시설 부족은 불편사항으로 지적됐다.

또 가족·친구·연인과 방문한 관람객 비중이 85%를 넘었으나 목포만의 특색 있는 프로그램, 가족·연인·친구와 함께 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이 적다는 의견이 많아 내년 목포가을페스티벌이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았다.

목포시 관계자는 “예향 목포의 문화예술 역량을 하나로 결집한 목포가을페스티벌의 발전 가능성을 충분히 확인했다”며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재즈페스티벌, 9미(味)와 함께하는 막걸리 축제(가칭) 등과 같은 더욱 다양한 콘텐츠를 기획하고 부족했던 점은 보완해 목포가을페스티벌을 목포의 정체성을 담은 대한민국 명품 페스티벌로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목포=정해선 기자

목포시가 최근 개최한 재즈콘서트 ‘낭만목포’ 축제장이 관람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다. 이번 축제는 관람객들의 재방문 의사를 이끌어 내는 등 성공축제로 평가받고 있다. /목포시 제공

해군 제3함대사령부가 최근 이틀간 사령부 본청, 항만지원대, 3무기지원대대 등에서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 혈액원과 함께 헌혈운동을 실시한 가운데 이날 함대 장병과 군무원들이 사랑 나눔 헌혈 운동에 동참하고 있다. /해군3함대 제공

해군 3함대, 헌혈로 ‘고귀한 생명 나눔’ 실천

“이웃에 작은 보탬” 간부·병사·군무원 등 300여명 동참

해군 제3함대사령부(사령관 이성열 소장)는 최근 이틀간 사령부 본청, 항만지원대, 3무기지원대대 등에서 함대 장병과 군무원이 헌혈에 동참했다.

이번 헌혈운동은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혈액원과 협조해 생명 나눔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마련됐다.

헌혈 기간 중 오전과 오후에 장병들의 헌혈을 적극 장려하기 위해 안내 방송을 주기적으로 실시했다.

또한 헌혈 차량을 장병들의 동선을 고려해 3개소에 각각 1대씩 배치해 접근성을 높였다.

이번 헌혈운동으로 3함대 장병 및 군무원 300여명이 약 12만cc의 혈액을 헌혈했다.

해군 3함대는 매년 전·후반기 2회 헌혈운동에 동참해 안정적 혈액 공급에 힘을 보태고 있다.

헌혈은 수혈이 필요한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에 건강한 3함대 장병 및 군무원들은 헌혈로써 타인의 생명을 구하며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3함대 참모장 이동현 대령은 “우리나라는 혈액을 외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는 혈액 부족 국가로 지금 이 순간에도 혈액이 필요한 우리 이웃을 생각하며 함대의 작은 힘을 보탰다”며 “앞으로도 매년 헌혈운동을 통해 생명사랑, 이웃사랑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목포=강효종 기자

“삶 터전 보호”…무안 망운면 ‘바다 살리기’ 정화활동

주민들과 조금나루유원지 청소

김발 등 20여t 바다쓰레기 수거

무안군 망운면(면장 조영희)은 지난 13일 망운면 조금나루 유원지 일대에서 대대적인 바다청소를 실시했다.

이날 정화활동에는 망운면사무소, 해양수산과, 원송현 어촌계, 부녀회 등 민·관 단체 관계자 70여명이 참여해 조금나루 백사장과 주변 송림 일대를 청소하고 태풍으로 파손된 김발과 밀려온 바지선을 제거하는 등 20여t의 바다 쓰레기를 수거했다.

맹순태 원송현 마을 이장은 “소중한 삶의 터전인 바다를 지키기 위해 마을 주민들 뿐만 아니라 공직자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한 데 대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마을어촌계를 주축으로 지속적으로 자율 정화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한편, 망운면은 매주 금요일 ‘깨끗한 무안만들기’와 분기별 ‘바다청소의 날’을 지정, 지역민들과 함께 정화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무안=전양태 기자

무안군 망원면이 지난 13일 지역 주민들과 함께 망운면 조금나루 유원지 일대 정화작업을 실시, 파손된 김발 등 20여t의 바다 쓰레기를 수거했다. /무안군 제공

“신안 섬 자생 희귀식물·분재 구경하세요”

암태체육센터서 분재전시회

신안군이 섬 자생식물과 명품분재를 함께 볼 수 있는 전시회를 마련했다.

14일 신안군에 따르면 지난 8일부터 17일까지 10일간 신안군 암태면 소재 국민체육센터에서 섬 자생식물 분재전시회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전시회에는 신안군에 거주하는 분재애호가 6인이 참여해 총 150여점의 작품을 전시하고 있다.

그동안 유사한 전시회가 여러 차례 개최된 바 있었지만 신안군 각 섬들에서 자생하는 희귀식물과 예술적 가치가 높은 분재가 한자리에 전시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신안군 관계자는 “‘유네스코 생물권 보존지역’, ‘람사르습지’, ‘슬로시티’ 등으로 지정된 신안은 희귀식물의 보고로서 가치를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환경을 보존하고 사람도 즐거운 신안군을 만들기 위한 일환으로 이 같은 행사를 꾸준히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신안군은 지난 4월 이후부터 천사대교 개통 기념으로 ‘농경문화 예술기획전’을 진행해 현재까지 4만4천700여명이 다녀가는 등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신안=양훈 기자

무안 청계면 지역사회보장協 ‘사랑더하기 행복나누기’ 모금

무안군 청계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백홍상·서명호)는 최근 청계농협 주차장에서 저소득층을 위한 ‘사랑더하기 행복나누기’ 모금행사를 개최했다.

‘사랑더하기 행복나누기’ 모금행사는 주변의 소외된 이웃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함께 살아가는 지역사회 복지공동체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마련, 지역가수들의 재능 기부를 통한 버스킹 공연과 함께 음료, 붕어빵 등 간식을 판매했다.

서명호 공동위원장은 “저소득 복지사각지대 지원을 위한 복지기금 마련을 위해 애쓴 협의체 위원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무안=전양태 기자

CMYK